

2010년 8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137조회)

눈으로 보는 것  
目で見えること

세잔은 이렇게 말합니다.  
セザンヌ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目で見ること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즉 눈으로 관찰하고  
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すなわち、目で観察して

경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経験したことを、論理的に分析して統合する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能力が必要だという意味でしょう。皆さんも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表面の姿ではなく、本質を分かるために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考える力を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이명옥의《아침 미술관》중에서 -  
- イ・ミョンオクの<朝の美術館>より -

\*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림을 그리면  
\* 目で見ることだけで絵を描けば

그 어떤 명작도 걸작품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そのどの名作も傑作品も生ま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마음으로 보고 생각으로 녹여 그려내야 합니다.  
心で見、考えで溶かして描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表面'も重要です。しかし、その中に隠れた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本質を貫いて見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てこそ

그 사람의 인생 그림에도  
その人の人生画も

명품이 나옵니다.  
名品になります

세잔 세잔ヌ  
종합 [綜合]

[명사·하다형 타동사] 総合。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別々なものをひとつにまとめること。  
기르다

20100823.txt

<1>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動植物を)養う;飼う;育てる;(花などを)作る;栽培する。

<2>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精神·体力などを)養う;強くする;培う。

녹다

<1> [자동사] (固体が熱に)溶ける;解ける;溶解する;液体になる。

<2> [자동사] (結晶体が液体に)とける;溶ける;溶解する。

꿰:-뚫다

<1> [타동사]貫く;突き通す;突き抜く;貫通する;突き刺す。

<2> [타동사] (ものごとや事情を)見抜く;見透かす。

2010년 8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1,176조회)

“이 남자를 꼭 잡고 말거야”  
“この男をしっかり捕まえるつもり”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했다.  
せきと愛は隠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った

이 첫 만남 이후로 백남준을 향한 연모가  
この初めての出会い以後、白南準に向った恋が

갈수록 깊어지게 된 나는 급기야 답답한 마음을  
ますます深くなった私は結局、もどかしい心を

어찌지 못하고 이무라 아키코라는 절친한 친구에게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ず、イムラアキコという親しい友達に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 짝사랑의 사연을 알게 된  
本音を洗いざらい話した。私の片思いの顛末をわかった

아키코가 다그치듯 물었다.  
アキコが、せきたてるように聞いた

“그래서, 어떻게 그 남자를 잡을 거니?”  
“それで、どうやってその男を捕まえるの?”

“나도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야.  
“私も有名な芸術家になるの

그래서 이 남자를 꼭 잡고 말거야.”  
それで、その男をしっかり捕まえるつもり”

- 구보타 시게코의《나의 사랑, 백남준》중에서 -  
- 久保田成子の〈私の愛、白南準〉より -

\*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 人生がまるごと変わる瞬間があります

사랑에 눈뜨는 순간입니다. 20대 한 일본 여성이  
愛に目覚める瞬間です。20台一人の日本女性が

예술가 백남준에게 한눈에 반해 '나의 사랑'을 꿈꿨습니다.  
芸術家白南準に一目でほれて'私の愛'を夢見ました

그리고 마침내 예술가가 되고, 나이 마흔에 백남준과 결혼하고,  
そしてついに、芸術家になって、齡40で白南準と結婚し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그리는 이 책을 썼습니다.  
彼がこの世を去ると、彼を描いたこの本を書きました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愛の力は偉大です。夢を見て、夢を育てて

그 너머의 꿈까지를 이루게 합니다.  
その向こうの夢まで叶うようになります

급기야 [及其也]

[부사] ついに;あげくのはてに;とうとう;結局;とどのつまり。

절친 [切親]

[명사·하다형 형용사] 大変親しいこと。

털어-놓다

[타동사] (秘密·悩みなどを)打ち明ける;ぶちまける;洗いざらい話す。

짝-사랑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片思い;片恋。

사:연 [事緣]

[명사] 事由;理由;いきさつ;てんまつ;訳;前後の事情。

다그-치다

[타동사] せき立てる;催促する;拍車をかける。

통:짜

[부사] 丸ごと;丸のまま。

눈-뜨다

<1> [자동사] (閉じた)目をあける。

<2> [자동사] (眠りから)覚める;目覚める。

반:-하다1

<1> {자동사·여 불규칙 활용} 異性に心を奪われて夢中になる;恋い慕う;ほれる。

<2> {자동사·여 불규칙 활용} (人となりや気性などが)とても気に入る;ほれ込む。

구보타 시게코(久保田成子, 73)

ナム·쥬ン·파이크(Nam June Paik 白南準 1932年7月20日 - 2006年1月29日)

は韓国系アメリカ人の現代美術家。ビデオ・アートの開拓者であるとともに、その代表的な存在である。

2010년 8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1,033조회)

동그라미 사랑  
丸の愛

원(동그라미)에는  
円(丸)には

치유력이 있다. 원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다.  
治癒力がある。円の中で私たちは同等だ

원에는 앞뒤위아래가 없다. '삶의 테' 역시 원이다.  
円には、前後ろ上下がない。'生の輪'はまさに円だ

이 테에서는 모든 종, 모든 인종, 모든 나무,  
この輪には、全ての種、全ての人種、全ての木

모든 식물이 설 곳이 있다. 이 지구가  
全ての植物が立つところがある。この地球を

건실하려면 이러한 삶의 완전함을  
堅実にしようとするなら、このような生の完全さを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必ず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신명섭의《강은 거룩한 기억이 흐른다》중에서 -  
- シン・ミョンソプの<川は立派な記憶が流れる>より -

\* 웅달샘에도 동그라미집이 있습니다.  
\* 小さな泉(ペンション名)にも丸い家があります

이곳에서 만나면 자연스레 동그랄게 앉게 됩니다.  
そこで逢えば、自然に丸く座るようになります

일어서서 손을 잡을 때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立って、手をつかむときも丸を描きます。

동그라미.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丸。始まりと終わりがひとつです

처음과 나중이 따로 없습니다.  
始まりと次が分かれてありません

언제나 하나되어 끝까지  
いつもひとつになって最後まで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至る愛。それが

동그라미 사랑입니다.  
丸の愛です

동등 [同等]  
[명사·하다형 형용사] 同等;程度や等級が同じであること。  
테1

<1> [명사] ‘테두리’의縮約形。

<2> [명사] たが;輪。

종: [種]

<1> [명사] 種;種子。[동의어] 종자。

<2> [명사] 種類;たぐい。

인종 [人種]

[명사] 人種。

건:실 [健實]

[명사·하다형 형용사] 健全で着実なこと。

-려면

<어미> ‘-려고 하면’의縮約形。母音で終わる動詞の語幹や尊敬の意味を表わす‘-시-’に付く從屬的連結語尾。子音で終わる語幹には媒介母音‘으’を添える。前のことばが後のことばの前提や条件になることを表わす:…(し)ようとすれば;…(し)よと思うなら。

존중 [尊重]

[명사·하다형 타동사] 尊重;たつとび重んじること。

옹달-샘

[명사] 小さい泉。

거:룩-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神々しい;神聖だ;尊い;立派だ;偉大である。

따로

<1> [부사] 離して;別に;離れて;別れて。

<2> [부사] ほかに;別途に;余分に。

2010년 8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1,150조화)

빗소리  
雨音

유리창에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ガラス窓に雨が落ちる音を聞きながら

잠을 청하자면 그렇게 행복하고 포근할 수가 없다.  
眠りを誘おうとすれば、こんなに幸せで、暖くなることはない

보호받는 느낌이 따뜻하다. 이불 속에 있는 게 그리  
保護を受ける感じが暖かい。布団の中にいるのが、こんなに

행복하다. 새벽녘에 시원스레 창을 때리는  
幸せだ。明け方さわやかに窓を打つ

굵은 빗발 소리에 잠이 깨면 어딘가로  
太い雨脚の音に目が覚めれば、どこかへ

홀쩍 떠나고 뜨게 가슴이 설렌다.  
ふと旅立つように、胸がわくわくする

빗소리는 무언가 모험을 하고  
雨音は、何か冒険をしたく

싶게 하는 소리다.  
なるような音だ

- 김진애의《이 집은 누구인가》중에서 -  
- キム・ジネの<この家は誰だろうか>より -

\* 몽골 게르에 비 떨어지는 소리,  
\* モンゴルのゲルで雨が落ちる音

옹달샘 천막집(하얀하늘집) 천정의 빗소리...  
小さな泉(ペンション名)の天幕部屋(白い空の家)天井の雨音

하늘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빗소리 들으며  
空の音楽のように聞こえます。雨音を聞きながら

누워있으면 저절로 깊은 명상이 됩니다.  
横になっていれば、おのずから深い瞑想になります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합니다.  
母の胸のように暖かいです

마음의 잔때가 씻겨지고  
心の全ての赤が洗われて

영혼까지 맑아집니다.  
魂まで清くなります

잠을 청하다. → 청-하다  
眠りをさそう。

포근-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溫度가)暖かい;ぽかぽか暖かい;風もなく暖か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服·布団などが)ふわふわしている;ふんわりしている;ふくよかだ;ふかふかしている。

보:호 [保護]

[명사·하다형 타동사] 保護。

새벽-녘

[명사] 暁(の頃);夜明け頃;夜明け方;朝明け;明け方;払暁。

휙쩍2

[부사] 気軽に突然やって来たり, 出掛けたりするさま:ふらっと;ふらりと。

설레다

<1> [자동사] 心がうわついて胸がわくわくする。

<2> [자동사] じっと一所に居たまれなくしきりにうごく。

모:험 [冒険]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冒険。

저-절로

[부사] 自然に;ひとりで;おのずから。

포근-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溫度가)暖かい;ぽかぽか暖かい;風もなく暖か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服·布団などが)ふわふわしている;ふんわりしている;ふくよかだ;ふかふかしている。



2010년 8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991조회)

나만의 '깊은산속 옹달샘'  
私だけの'深い山中の小さな泉'

영감을 얻고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靈感を得て、平穩さを得るために

자신만의 '깊은산속 옹달샘' 하나쯤은 갖는 것이 좋다.  
自分だけの'深い山中の小さな泉'ひとつくらいは持つのがよ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私が誰なのか、そして今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

알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分かるためには、私の内面の声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  
沈黙の中に自分の内面の声を聞く場所

이곳이 바로 '깊은산속 옹달샘'이다.  
それがまさに'深い山中の小さな泉'だ

나의 옹달샘은 어디인지, 나는  
私の小さな泉はどこなのか、私は

그곳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そこをどれだけよく探すのか

되돌아볼 일이다.  
振り返ってみる

- 김창옥의《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중에서 -  
- キム・チャンオクの〈愉快な疎通の法則67〉より -

\* 무심히 읽고 있던 책 속에서  
\* 無心に読んでいた本の中で

'깊은산속 옹달샘'을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深い山中の小さな泉'に逢うとは、うれしいことこの上ないです

'깊은산속 옹달샘'은 산토끼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  
'深い山中の小さな泉'は、山ウサギだけでなく、一生懸命生きて

지친 사람들이 맑은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는 곳입니다.  
疲れた人たちが、清らかな水を一杯飲んでいくところです

감사하게도 220만 아침편지 가족들에게도  
ありがたくも220万朝の手紙家族たちにも

나만의 '깊은산속 옹달샘'이 있습니다.  
私だけの'深い山中の小さな泉'が有ります

언제든지 물 한 모금 필요할 때  
いつでも、水一杯必要なとき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私の家'と思って

시간내어 오세요.  
時間を作ってきてください

그지없다. → -없:다

限りない。

산-토끼 [山—]

[명사] 『동물』ノウサギ。

모금

[의존명사] (液体や気体などを)口に含む一回分の量。

2010년 8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332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정현애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ン・ヒョ네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아름다운 우정  
美しい友情

우정은  
友情は

우리 삶에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でオアシスのようなことです

참된 친구가 없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고독이며  
誠実な友人がないことこそ、悲惨な孤独であり

그러한 세계는 황무지입니다.  
そんな世界は荒地です

그러나 진실한 벗이란  
しかし、真実の友人とは

그 많은 친구,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そのたくさんの友人、すべて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難しいことがあるとき、その苦痛を分けてもって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벗이어야  
楽しいことがあるとき、友に喜ぶそんな友人でこそ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真実の友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 이정하의《우리 사는 동안》중에서 -  
- イ・ジョンハの<私たちが生きている間>より -

\* 이 삭막할 수도 있는 세상에  
\* この索漠といえる世界に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덜 외롭습니다.  
幸いにたくさんの友人たちがいて、あまりさびしくありません

'친구', '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우정'이지요.  
'友人', '友'といえば、一番先に浮かぶ単語が'友情'でしょう

그 우정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우리가 삶에서  
その友情は、砂漠で会うオアシスのように私たちが人生で

지쳐있고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疲れていて、渴きを感じる時、さわやかな清水のようなものです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진실되고  
人生の意味と価値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真実で

아름다운 우정을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美しい友情に今日会いたいです。

참-되다

[형용사] (心や行動が)いつわりがなく正しい; 誠実で実がある; まことである。

황무-지 [荒蕪地]

[명사] 荒蕪地; 荒地。

참-답다

[형용사·부 불규칙 활용] (うそや偽りがなく) 真実である; 本当である; 純粹である。

덜:

<1> [부사] ある基準より弱いさま; ある程度に及ばないさま。

<2> [부사] (主に動詞の前に付いて) より少なく; より少なめに。

갈증 [渴症]

<1> [명사] のどの渇き。

<2> [명사] ‘갈급증(渴急症)’의 縮約形。

삭막 [索莫·索寞·索漠]

[명사·하다형 형용사] 索漠; 索莫; 索寞。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忘れてよく思い出せないさま。